



방탄소년단이 24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화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방탄소년단은 한류와 한글을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관문화 훈장은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하며, 방탄소년단은 역대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자가 됐다. 9월3일 미국으로 출국, 북미와 유럽에서 '러브 유어셀프' 월드투어 공연을 벌이고 52일 만인 24일 오전 귀국한 방탄소년단은 여장을 풀자마자 시상식장으로 향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여신들의 안방극장 나들이 | 송혜교 '남자친구'·이나영 '로맨스는 별책부록'으로 드라마 복귀

“열 살 연하 후배와 연기 호흡? 거뜰해요”

송혜교 상대역 열 한 살차 박보검
이나영은 열 살차 이종석과 호흡
나이 잇은 미모…찰떡궁합 기대

안방으로 돌아오는 톱스타 송혜교(36)와 이나영(39)의 과감하면서도 이색적인 선택이 눈길을 끈다. 오랜만에 출연하는 TV 드라마를 통해 사랑과 성장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풀어낼 이들이 나란히 열 살 이상의 나이 차를 보이는 후배 배우들을 상대역으로 만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송혜교는 11월28일 방송을 시작하는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로 시청자와 만난다. 드라마 출연은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 이후 2년 만이다. 오랜 연기 공백 끝에 최근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이나영도 드라마 출연작을 확정했다. 내년 초를 목표로 방송 시기를 조율하면서 현재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tvN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다. 이나영의 드라마 출연은 무려 9년 만이다.

송혜교와 이나영은 오랜 시간 변함없는 모습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스타로 통한다. 물론 아시아 한류까지 좌우하는 송혜교와 비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는 송혜교(왼쪽)와 이나영은 각각 열 살 이상 차이 나는 후배와 호흡을 맞춘다. 스포츠동아DB

교혜 이나영은 작품 참여 등 활동의 폭이 좁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드라마 복귀가 맞물리면서 나란히 주목받고 있다.

특히 두 톱스타가 새 드라마에서 만나는 상대가 열 살 이상 어린 후배 배우들이란 사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송혜교가 '남자친구'를 함께하는 박보검은



1993년생. 두 사람은 열한 살 차이다. 이나영의 상황도 비슷하다. '로맨스는 별책부록' 출연을 먼저 결정한 이종석과 꼭 열 살 차이다.

물론 다양한 소재의 발굴과 장르의 도전이 활발한 드라마 제작에서 더는 연상연하 커플의 이야기나 배우 캐스팅은 새로운 게

없다. 하지만 송혜교와 이나영 같은 톱스타가 비슷한 시기 열살 연하의 배우들과 만나 사랑이야기를 소화한다는 사실은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비슷한 시기 복귀 드라마를 내놓는 사실을 넘어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각각 송중기, 원빈과 함께 '톱스타 부부'라는 개인적인 상황까지 겹치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한껏 자극하고 있다.

송혜교는 '남자친구' 방송을 앞두고 최근 남미 쿠바에서 장기간 로케를 진행했다. 방송을 약 한 달 앞둔 상황이지만 이미 초반부를 채울 주요한 분량의 촬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여유롭게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이국적인 풍광 아래 펼쳐지는 박보검과의 운명 같은 러브스토리를 향한 관심도 상당하다.

이나영은 11월21일 영화 복귀작 '뷰티풀데이즈'의 개봉과 동시에 드라마로도 향하는 분주한 활동을 시작한다. 그를 다시 드라마로 이끈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출판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남녀의 유쾌한 로맨스다. 이나영은 “극본을 쓴 정현정 작가의 따뜻하고 유쾌한 웃음이 녹아있는 대본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작품을 향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해시태그 컷



“다이어트 비결이 궁금해”

연기자 이예림의 확 달라진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드라마 '내 아이는 강남미인'을 위해 체중을 9kg 늘렸던 그녀가 예전의 날씬함을 되찾았다. 확실히 드라마 출연 때보다 얼굴 살이 쏙 빠진 모습이다. 다이어트 효과 때문인지 이목구비는 더욱 또렷해졌다. 팬들은 “다이어트 비법 공유해주세요” “진짜 살 많이 빠졌다” 등의 반응을 보낸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이예림 #이경규말 #다이어트성공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연예 잡학사전>



공포물=여름 공식은 옛말 비수기 공략하는 공포영화

가을 극장가에 공포영화가 몰려온다. '여름=공포영화의 계절'은 이제 옛말이 된 분위기다. 최근 제작편수가 급격히 줄어든 한국영화 공포물은 물론 내로라하는 공포 작가의 신작까지 가을 관객을 공략한다.

이달부터 11월까지 개봉하는 공포영화는 줄잡아 네 편. 공포물 마니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할리우드 블룸하우스의 '할로윈'을 필두로 '마라', '악령의 수녀원'은 물론 오랜만에 나온 한국 공포영화 '여곡성'까지 줄줄이 나온다. 여름이 아닌 가을이 새로운 공포시즌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하순부터 11월은 대체적으로 극장이 비수기로 통한다. 한국영화 및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쏟아지는 7~8월은 그야말로 대작의 격전지. 6월 중순부터 화려한 상업영화가 전진 배치되고, 7~8월을 거쳐 9월 초까지 그 열기가 이어진다.

여름과 더불어 극장가의 양대 성수기로 꼽히는 12월~1월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는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포영화는 그 틈을 공략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어가는 뜻이기도 하다. 공포영화가 대작의 공세를 피해 비교적 개봉 시기도 여유롭게 정하고, 상업관 확보도 수월한 비수기, 즉 가을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가을과 더불어 봄에도 공포영화가 늘어나는 이유도 같다.

가을과 봄이 극장 비수기라고 해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공포영화가 노력만 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반전의 흥행을 거두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 국내서 공포영화의 봄을 다시 일으킨 '컨저링'과 '인시디어스' 1편은 9월에 개봉해 흥행하면서 '가을=공포물 시즌'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김형조·김대건 기자

28년만에 재개봉 '우묵배미'…박중훈이 팔건은 이유

첫 주연상…직접 홍보 나서

배우 박중훈이 31일 28년 만에 관객을 다시 만나는 주연 영화 '우묵배미의 사랑'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신의 초기 필모그래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홍보 활동을 자처했다.

박중훈은 '우묵배미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직접 관객을 만난다. 그는 '우묵배미의 사랑'에서 함께 연기한 최명길, 유혜리 그리고 연출자 장선우 감독과 함께 29일 무대에 선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를 상영한 뒤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

'우묵배미의 사랑'은 1990년 박영한 작가의 동명 소설을 극화한 작품. 경기도 외곽의 시골마을 우묵배미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렸다. 박중훈과 최명길은 우묵배미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서로의 마음을 달래고, 유혜리는 박중훈의 그악스런 아내 역을 맡아 연기했다.

'우묵배미의 사랑'은 1986년 '깜보'로 데뷔한 뒤 한동안 청춘스타로 군림한 박중훈에게 연기인생의 전환점이 된 작품이다. 그의 첫 정통 멜로영화이면서 그 2년 전 '칠수와 만수'에 뒤이어 그의 연기 활동 초기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박중훈은 깊이 있는 연기로 이전과는 다른 결의 면모를 과시하며 그해 백상예술대상 영화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쥐며 첫 주연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중훈은 '우묵배미의 사랑'의 재개봉 소식을 듣고 배급사 측에 자신의 역할을 먼저 제안했다. “영화 개봉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최명길과 유혜리, 장선우 감독 등이 흔쾌히 동의하면서 주역들이 한 무대에 서게 됐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9년 몸 담은 코엔스타즈 떠나기로 방송관계자들 향후 거취 예의주시

개그맨 유세윤이 현 소속사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의 거취에 방송가 시선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유세윤은 현재 소속사 코엔스타즈와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지만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엔스타즈와는 장동민·유상무와 함께 2009년부터 동고동락해왔기에 유세윤이 어떠한 미래를 보고 결심했는지 그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유세윤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방송가에 퍼지면서 그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방송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재치 넘치는 입담이 때때로 활동의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특유의 센스와 개성은 누구도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유세윤

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할지 다른 연예기획사에 들어갈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유세윤이 일찌감치 주변 지인들에게는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자유롭게 활동하기에는 1인 기획사가 제격이지만, 혼자 활동하기엔 버거운 면이 있어 다른 기획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